



25두 출하를

위한

관리포인트 (下)

- ◇...본고는 영국의 인터내셔널 양돈...◇
- ◇...컨설턴트인 John Gadd씨가 일...◇
- ◇...본에서 행한 세미나 내용을 요약...◇
- ◇...한 것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4) 모돈과 그 번식기관의 건강상태 : 분만시 및 종부시의 청결도 유지에 의해 오염을 피할 수 있고, 양돈전문 수의사는 백신접종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5) 스트레스 :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은 모돈이 불안해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 시기에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싸움, 과밀사육, 음수와 사료의 부족, 추위와 더위(목표는 20~21℃), 쾌적한 침상의 부족, 소음, 불안 또한 수태지의 방해 등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6.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 : 종부후 1개월간은 모돈에 스트레스를 주고 흥분시키고, 불안을 주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 준다. 특히 젊은 모돈에는 이와같은 일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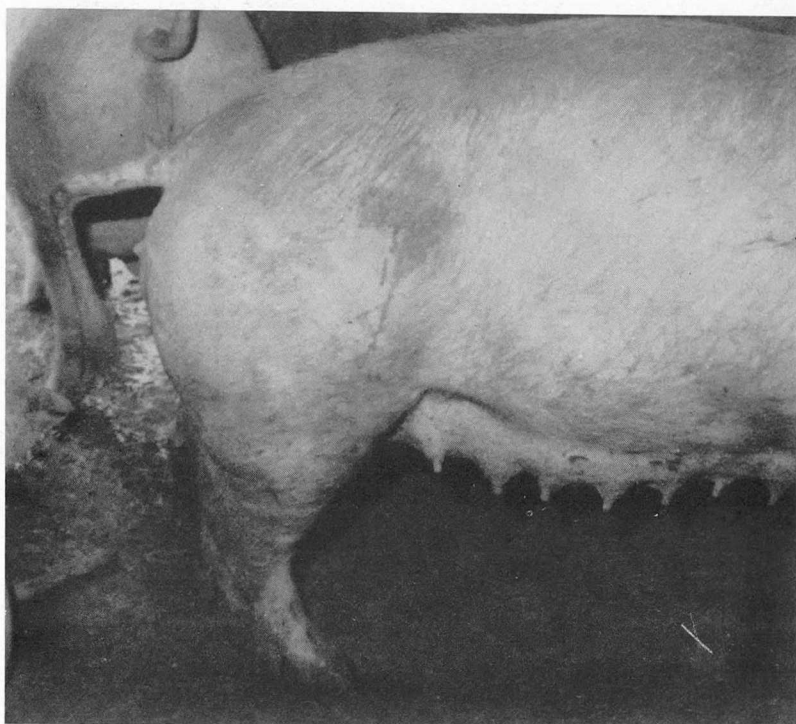
(2) 비유중에는 체지방의 지나친 감소를 피하도록 한다. 사료에 유지를 적절히 첨가하여 급여하고, 이유를 끝내면 모든 모돈에 무단급이를 실시한다. 단 살 켜 모돈에는 너무 많은 사료를 급여하지 않도록 한다. 여윈 모돈은 사료로 체중을 회복시킨다(이때 왜 모돈이 여위었나를 반성해 본다).

(3) 교배장소를 청결히 하고 수태지의 음경부분을 정기적으로 살균크림으로 소독한다.

(4) 모돈이 여위어 있을 경우(몸 컨디션 점수 1.5~2)에는 가소화에너지로 1일 7,900~8,100 Kcal까지 사료를 급여해도 좋으나, 착상이 완료될 때까지는(통상 첫번째 종부후 26~30일) 그 이상 사료를 급여하지 않는다. 알맞는 모돈(몸 컨디션 점수 2.5~3) 및 살 켜 모돈(몸 컨디션 점수 3.5이상)에는 하루에 사료 2kg까지 주어도 좋으나, 하루 6,200Kcal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임신기간 114일은 모돈의 몸상태를 회복시키는데는 충분한 기간이기는 하나, 가급적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좋고, 임신 90일이 되면 태아의 영양소 요구량이 많아 지므로 그때까지 모돈 자신의 영양요구량을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임신중의 관리

(1) 몸상태의 회복

모돈은 체지방의 축적이 여러가지 상태로서 임신을 하게 된다. 임신기간 114일은 모돈의 몸상태를 회복시키는데는 충분한 기간이기는 하나, 가급적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좋고, 임신 90일이 되면 태아의 영양소 요구량이 많아지므로 그때까지 모돈 자신의 영양요구량을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시기까지는 몸 상태를 3으로 하고, 그후 분만전에 3.5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 임신중기와 말기에 사료를 너무 많이 급여하지 않도록 한다.

과식을 해도 모돈 및 그 태아에게는 악영향을 주는 일이 적으나, 사료가 허실되고 수유기간중에 식욕을 잃는 원인이 되기 쉽다. 또 이것이 모돈의 체중을 빨리 잃게 하여 이유후의 번식에 문

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분만전 10일간에 여분의 열량을 급여하면 약하고 체중이 적은 신생아에 활력을 주게 되며, 이 때문에 생존율을 높이고 체력을 소모한 모돈에서는 만출(娩出)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임신중에 모돈의 사료급여와 관리가 좋으면 통상 특별한 열량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

8. 분만시의 관리

분만시에 간호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돈의 만출수(娩出數)와 간격을 조사한다. 최초의 힘을 준 때부터 15~20분에 최초의 자돈이 태어난다. 그후 약 15~20분마다 새끼를 출산하는 것이 정상이다.

사산자돈은 평균 35분 걸리나 그 사산은 질식

에 의한 것도 있으므로 30분 지난때에 손을 넣어 조사해 보면 새끼를 구해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돈에 따라 각양각색이므로 모돈 개체를 잘 알지 않으면 안된다.

2.5~3시간이 정상적인 분만 시간이다. 분만은 최후의 출산후 30분에 태반의 배출이 보이며, 모돈이 일어서든가 방향을 바꾼 시점에서 분만이 종료된다.

(1) 간호 : 건강한 모돈의 약 1%만이 조산을 요하며 난산의 1/3만이 자돈의 위치 이상에 연유한다. 분만이 한시간 늦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산을 필요로 하나, 숙련된 사양관리자는 30분 지났을때 특히 그 분만이 임신 116일 이상이던가, 모돈이 작던가, 분만유기한 경우에 손을 넣어 출산을 돕는다.

산도에 손을 넣을 경우엔 4가지 규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즉 천천히, 청결히, 순환제 사용, 수의사에 의뢰하여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산도의 폐쇄를 풀 수 있는가를 그림으로 그려 나타내 주도록 한다.

(2) 사료의 급여 : 소량의 사료를 급여한다. 먹지 않는 사료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자돈이 먹지 않도록 한다.

(3) 소생 : 심장음으로는 생사의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심장음이 전혀 들리지 않아도 자돈은 소생한다. 자돈이 공기를 흡입하고자 할때는 2~3회 돌려 진동을 준다. 손을 주먹손으로 쥐고 콧속에 천천히 숨을 불어 넣거나 가슴팍을 약간 눌러준다.

(4) 분만후의 관리 : 모돈의 궁둥이 부분에 전등을 비추고 배출된 오물을 거뒀내 청소를 한다. 분만시간이 길고 난산기미가 있는 모돈에는 페니실린이나 마이신을 수의사의 조언을 듣고 주사한다. 자돈이 쉬고 있는 곳을 너무 밝지 않게 한다. 새끼는 너무 밝은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적색전등이 제일 좋다.

9. 수유중에 사료섭취량을 최대로 하는 방법

- (1) 1일 1회 이상 급여한다.
 - (2) 수유기용 특별사료를 급여한다.
 - (3) 음수는 충분한 양이 흐르도록 한다 : 매분 1~2ℓ
 - (4) 사료는 신선하고 냉소에 보관한다.
 - (5) 임신중에는 사료를 지나치게 주지 않는다.
 - (6) 모돈에 서늘하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준다. 풍속이 초당 0.3m 이상인 때는 최고 21℃, 풍속이 느릴때(예 0.1m일때)에는 19℃ 이하로 한다. 모돈의 콧쪽으로 공기를 보낼 때에는 새끼돼지에 찬바람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7) 돈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 (8) 스트레스가 없도록 한다. 불안한 모돈은 사료를 먹는 양이 적다.
 - (9) 사산인가, 생후 사망인가를 확인한다. 이는 처치대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살아서 태어났는가, 죽어서 태어났는가를 판정하는데는 자돈의 폐를 떼어내 물동이에 물을 넣어 조사한다. 사산한 자돈의 폐는 거의가 가라앉고, 살아서 태어난 후 죽은 자돈은 거의가 물에 뜬다.
- 10두의 모돈에서 보통 4두의 사산이 보인다. 1분만에 1두의 사산은 거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산이 있는 40%의 모돈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진짜 사산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사산이 절반(20%)으로 1분만당 1두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절반(20%)에 1분만당 최고 3~4두의 사산이 보일때는 그 모돈을 기록하고 대책을 세운다. 해결방법이 없으면 이와같은 모돈은 도태를 해 버린다. 圖解